



## 위스키와 로맨스

### - 范莹의 〈北地戀歌〉에 재현된 1940년대 중·러 문화접촉과 개인 기호의 민족화

Wiskey and Romance : Taste and Sino-Russian Cultural Contacts in Fan Ying's "Beidi lian'ge"

---

저자  
(Authors)            봉인영  
                             Bong In Young

출처  
(Source)            [동아문화 52](#), 2014.11, 167-191 (25 pages)  
                             [The Journal of S.N.U. Institute for Asian Studies 52](#), 2014.11,  
                             167-191 (25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Institute for Asian Studies Colleges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139744>

APA Style            봉인영 (2014). 위스키와 로맨스. 동아문화, 52, 167-191.

이용정보            서울대학교  
(Accessed)            147.46.182.23  
                             2015/12/30 10:41 (KST)

#### 저작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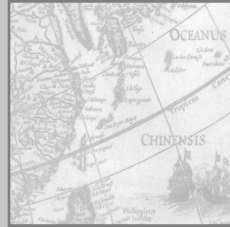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東 · 亞 · 文 · 化 · 52

## 위스키와 로맨스: 范莹의 〈北地戀歌〉에 재현된 1940년대 중 · 러 문화접촉과 개인 기호의 민족화

봉인영

1. 음주 주제와 중 · 러 문화접촉의 문제
2. 음주, 중 · 러 유대감의 상징, 혹은 그 너머
3. 위스키, 모성 권위의 상징 장치와 젠더
4. 위스키, 민족 저열성의 담지체 및 개인 기호의 민족화
5. 음주, 배제와 환대의 정치학 사이



# 위스키와 로맨스: 范莹의 〈北地戀歌〉에 재현된 1940년대 중·러 문화접촉과 개인 기호의 민족화

봉인영\*

## 1. 음주 주제와 중·러 문화접촉의 문제

한 개인이 술을 마시고 특정 주류를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기호와 습관을 반영하는 개인적 취향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이 하는 음주 행위는 그가 속한, 혹은 추정적으로 속한다고 간주되는 민족 및 국가 집단과의 관련 속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개인적 취향의 실천은 곧 사회적 취향의 실천 문제로 확장되는 것이다. 특히 한 개인이 타민족과 관계를 맺는 다민족적·다문화적 상황에서는 취향의 문제가 더 이상 한 계층을 구별 짓는 사회적 기호의 지표로서 작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민족성을 대표하는 문화적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개인 취향의 문제가 특정한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가질 수 있는 다의성에 착안하여,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피하여 만주국(1932-1945)에 망명한 백군과 러시아 여성이 위스키를 마시는 행위가 1940년대의 중국 소설 속에서 재현되는 양상 및 그것에 의미가 부여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

\* 서울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본 연구에서 1940년대 만주국의 중국작가 판잉(范莹)의 소설 텍스트, 〈북방의 사랑 노래〉 〈北地戀歌〉(Beidi lian'ge, Northern Love Song)를 중심으로 개인 기호의 문제가 계급을 구별하는 사회적 상징 기호, 나아가 민족적 차이 및 차별을 강조하는 코드로 작동하는 구조를 고찰한다. 이에 더하여 그것이 중·러 문화접촉 및 양자의 민족성을 구현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다. 이 작품은 중국 남성과 러시아 소녀 사이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서사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인종의 차이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녀 주인공의 관계가 인종의 차이, 모권 및 가족이라는 벽에 부딪혀 파편화되는 방식과 인종 관념이 위계적으로 구축되는 사회 문화적 재현의 논리를 규명한다.<sup>1)</sup> 본고는 이 소설이 생물학적인 신체 특성(즉 타자화, othering의 예)뿐만 아니라 현대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호품인 술을 매개로 하여 인종 차이를 재현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1940년대 중국 소설에 나타난 기호품의 인종화 방식 및 그것에 민족적 성격이 부여되는 방식을 고찰한다.<sup>2)</sup> 그리고 중·러 문화접촉에서 개인 기호와 기호품의 선

1) 范莹, 〈北地戀歌〉, 《麒麟》, 1941년 10월, 82-87. 《麒麟》잡지는 당시 만주국의 대표적인 통속 잡지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통속 잡지에 실린 작가들의 생평과 약력은 추적하기 쉽지 않다. 당시 출판된 통속 문학잡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崔晓丽, 〈伪满时期文学杂志新考〉,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107, 2005. 140-157 참조.

2)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탈식민지화 이후 인종주의의 기반이 생물학적 차이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문화 차이로 대체 실천되는 양상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신인종주의(a neo-racism)라고 정의했다. Étienne Balibar, "Is There a 'Neo-Racism?'," in Étienne Balibar and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Verso, 1991), 17-36. 본고는 판잉의 작품에서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타자화 경향이 문화 요소와 결합하여 생산되는 효과에 주목할 것이다. 이 접근은 중국 소설 서사에 내재한 위계 논리가 구별, 나아가 차별과 배제의 형태로 발전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고, 또한 타자성과 문화 차이가 분리되어 작동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에도 유효할 것이다.

호도 문제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인종화·민족화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문화 생산장에서 중국 민족성이 구성되는 원리를 밝힌다.

본론은 세 부분으로 전개된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소설의 플롯을 개괄하고 이 작품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점을 비평적으로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작품에서 중·러 간의 로맨스가 서사적으로 구축되는 방식을 살펴본 후, 기호품의 인종화 및 민족화에 내재한 사회 문화적 논리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호품의 소비가 단순한 개인 취향의 호불호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다문화적인 문맥의 소비문화 속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와 결부하여 인종적 가치를 생산해낸다고 본다. 따라서 세 번째 부분에서는 개인 기호가 민족성, 특히 저열성으로 인식되는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함으로써, 1940년대 만주국의 문화 생산장에서 기호품 코드의 레짐(regime)이 어떻게 건설되고, 어떠한 구별과 배제의 논리하에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 기호가 인종화·민족화되는 사회 문화적 논리를 탐색함으로써, 일본 식민 통치하에 문화 생산장에서 펼쳐졌던 중·러 문화접촉의 복잡성 및 다의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또한 식민 지배 질서가 국가 경계 구분에 의해 식민자/피식민자로 작동을 했다는 기존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것이 다이내믹하게 구성되는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제국과 제국주의를 연구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음주, 중·러 유대감의 상징, 혹은 그 너머

판잉의 소설 〈북방의 사랑 노래〉는 기혼인 중국 남성 작가 리시아(李霞)가 H시(남녀 주인공이 타이양다오(太陽島)로 놀러 가는 것으로 미루

어보아 서사 공간의 배경은 하얼빈으로 추정됨)로 가서 일할 때 알게 된 러시아 소녀 샤링(沙玲)과의 로맨스를 그리고 있다. 위다푸(郁達夫, 1896-1945)의 소설 〈沈淪〉의 주인공과 유사하게 그는 러시아 여성 주인집 이층에 세 들어 살게 되고, 주인집 여성의 딸과 사랑에 빠진다. 샤링은 백군과 귀족 장교의 후예로 그의 아버지는 모든 장군들을 조정하는 구 러시아의 실세였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 시기에 구정권을 지키려다 희생당했다. 그로 인해 샤링의 어머니는 그녀가 9세 때에 만주국으로 이민 오게 된다. 〈沈淪〉의 주인공이 주인집 딸을 엿보는 관음적인 코드를 보여준다면, 이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은 한 층을 사이에 두고 거주하며 직접적으로 교류한다. 리시아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그녀의 딸 샤링과 알게 된 후 그녀의 미모와 파란 눈에 매혹되어 사랑의 감정을 틔운다. 리시아가 현악기를 연주하면 그녀는 집 뒤의 버드나무 아래에 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고, 조금 친해지자 이층에 올라와서 종종 대화를 나누었다. 이 둘은 길에서 마주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리시아는 샤링에 대한 감정을 일기에 세세하게 기록했다. 그는 본인의 필력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며, 자신의 글이 푸시킨과 고리키처럼 뛰어나고 또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그는 고향에 있는 그의 부인과 아들 위얼(宇兒) 그리고 샤링 사이에서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괴로워한다. 그의 내적 갈등과 함께, 설상가상으로 샤링의 어머니도 이 둘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샤링의 어머니는 위스키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리시아가 선물한 위스키 여섯 병에 현혹되어 마침내 이 둘의 관계를 허락하고 만다. 리시아가 보기에 러시아인들은 모두 다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므로, 샤링은 위스키의 대가로 잠시나마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리시아는 부인에게서 그의 아들 위얼이 아프다는 전보를 받고서 곧장 집으로 돌아간다. 그의 서두른 귀향이 무색하게도, 위얼은 결국 죽고 만다.

그는 고향에서 꽤 오래 머무른 후에 샤링을 만나러 H시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녀 역시 이미 죽고 없었다. 리시아는 샤링이 남긴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소설은 비극적으로 끝난다(82-87쪽).

노먼 스미스(Norman Smith)는 만주국의 술과 아편에 관한 연구를 하여 최근에 출판한 그의 저서 《취한 만주: 중국 동북지방의 주류, 마약 및 관련 문화(Intoxicating Manchuria: Alcohol, Opium, and Culture in China's Northeast)》 제5장에서 취하게 만드는 제품의 소비에 관해 쓴 소설 작품을 논하고 있다. 스미스는 만주국에서 중국인들이 나라를 빼앗긴 슬픔과 식민 통치의 고난을 음주로 달래고자 했던 것처럼, 만주국의 러시아 망명자들도 똑같이 음주 문화의 영향하에서 그들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스미스의 연구는 술이 망명자들의 슬픔과 설움을 달래는 데 큰 위안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3)</sup> 그는 샤링의 어머니가 알코올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고, 샤링 역시 리시아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없었던 점에 주의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스미스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주국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망명 경험에 주목하여, 이처럼 모국에서 뿌리 뽑히는 사회적 탈구(social dislocations)의 경험이 있었기에 〈북방의 사랑 노래〉와 같은 소설이 생산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샤링의 죽음과 비극적 결말의 원인은 러시아인들이 끝내 자신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sup>4)</sup>

3) 스미스의 기존 만주국 문학에 대한 연구는 중국여성작가에 제한되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Norman Smith, *Resisting Manchukuo: Chinese Women Writers and the Japanese Occupation*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2007) 참조.

4) Norman Smith, *Intoxicating Manchuria: Alcohol, Opium, and Culture in China's Northeast*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2012), 101.



먼저 스미스의 연구는 만주국에서 아편과 술의 실제 사회적 유통과 소비는 물론, 그것과 관련하여 파생된 문화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sup>5)</sup> 스미스는 만주국 정부가 아편 및 주류의 생산과 소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시켜 세수(稅收)와 국가 이득을 증대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하는, 제국 통치의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스미스의 분석은 러시아인들이 망명자로서 겪어야만 했던 고국을 잃은 상실감, 나아가 그들이 중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강등된 위치에 처함에 따라서 비롯된 슬픔의 문제에 치중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 작품 속 등장인물은 술로 그들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며, 중국인과 러시아인을 묶어주는 공통분모는 국가를 잃었다는 상실감이다.<sup>6)</sup> 이 논리에 의하면 중국인은 만주국을 떠도는 러시아인들의 망명 생활과 망명자라는 낮은 사회적 위치, 그 속에서 소수자이자 약자로서 겪어야만 하는 사회적 고초를 이해해 주고 동정해 주는 존재가 된다.<sup>7)</sup> 그러나 스미스의 분석은 러시아인과 중국인이 공통으로 처한 조국 상실의 상황과 거기에서 비롯된 유대감에 치중하여, 위스키라는 기호품이 서사 전개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와 중요한 역할을 도외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그의 논지는 위스키가 러시아 민족성을 대변하는 환유(metonymy)의 장치로 사용되고, 그것이 타자화와 타민족인 러시아인을 중국 사회에서 배제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러 로맨스 관계에서 위스키가 사랑과 진배없는 존재로 부각

5) 재만 한인 및 러시아 한인의 아편마약 밀매에 관한 연구는 박강, 《20세기 전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 서울: 선인, 2008 참조.

6) Smith, *Intoxicating Manchuria*, 102-103.

7) 러시아는 H시 거리를 확보하는 많은 러시아인들을 보고, 그가 러시아인들이 겪고 있는 나라 잃은 슬픔에 깊게 동감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판잉, 앞의 작품, 84쪽.

되는 방식과, 러시아인들이 술을 좋아하는 기호가 민족화되는 방식 등 그 확장 논리에 대해서 분석한다.

### 3. 위스키, 모성 권위의 상징 장치와 젠더

리시아와 샤링의 관계는 리시아가 샤링의 웃음과 아름다운 모습에 매혹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가 아주 매력적이어서 마치 그녀의 두 눈동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반짝이고 있을 것이라고 느낀다(82쪽). 리시아가 샤링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이처럼 그녀가 중국인과 전혀 다른 신체 특징을 가졌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러시아 소녀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높은 코, 날씬한 허리, 빛나는 눈동자, 적당하게 큰 입,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아름다운 러시아 출신 소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83쪽).

당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중국인 ‘나’는 또 다른 피식민자이면서 망명객인 러시아인을 타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샤링은 중국인에 의해 “러시아계 여자친구”(俄系女友, 83쪽) 혹은 “이방인”(異邦人, 85쪽)으로 호명된다. 이 피식민자에 의한 피식민자의 타자화 과정은 얼핏 보기에 생물학적 및 신체적 특성이 개인 교류 차원에서 이성에게 매력을 주는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타자성이 마치 개인적 매력으로 치환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에 따라 피식민자가 구성한 타자성(alterity)은 차이와 구별, 배제와 차별의 논리에서 자유로워 보이는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개인의 사교상 신체적 특성과 매력은 그 개인의 출신을 밝히는 인종과 민족 기원의 문제 및 문화 기호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또 다른 차이의 구조를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차별이 생산된다는 생물학적 인종주의가 출신과 기원 및 문화 요소의 영향력하에 사회 문화적으로 재현되는 기호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강해지는 국면으로 전개된다. 이 점은 러시아와 샤링의 관계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샤링 어머니의 존재가 소설 서사 전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샤링의 어머니는 처음에 이 둘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지만, 후에 교제의 첫째 전제 조건으로 위스키를 내건다.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개인 기호품인 위스키이다. 러시아가 위스키 여섯 병을 가져다주자 샤링의 어머니는 그에게 바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샤링과 러시아의 교제를 허락한다(85쪽). 이처럼 중년의 러시아 여성에게 있어 위스키는 딸의 로맨스뿐만 아니라 인생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비할 데 없는 가치를 가진 상품이다. 위스키와 같은 특정 주류(酒類)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 취향의 문제이며, 개인 취향은 또한 사회적 상태와 현실 여건 속에서 특정한 소비 패턴으로 발전하게 된다. 개인의 소비 행위는 그가 처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결국 그것의 의미 역시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상황의 영향하에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소비 행위는 사회적 요소에 종속된다. 그리고 개인은 상품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기 때문에, 개인 취향은 소비 주체의 욕망이 투영된 소비 심리를 드러내는 사회적 의미의 담지체가 된다.

이 작품이 출판될 당시 만주국은 전시 중이었고, ‘성전’(1941-1945)의 기치 하에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총동원령이 시행되었던 전쟁의 막바지 시기였다. 전쟁 말기에 식량 통제는 더 엄격해졌고, 술 원료인 곡물 부족으로

인해 당국은 보다 엄격하게 술을 통제하게 된다. 스미스의 연구에 따르면 만주국의 중국 측 정책 입안자들은 정치적 문제와 건강상의 이슈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만주국 당국은 식량 자원 부족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주류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고자 했다. 만주국의 주류 정책은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현실 및 표면적으로 국민 건강을 염려하고 증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속에서 책정되었다. 1940년 당시 전시라는 특수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공급부족으로 인해 주류 값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술 생산량, 특히 맥주 생산량이 급감하게 된다. 예를 들면 1942년에 맥주는 500그램당 1.59원이었지만 1945년에는 10.45원으로 경충 된다. 1943년과 1944년 사이에는 식량 배급 정책에 영향을 받아 주류 종류도 현격히 줄었는데, 이때 외국산 술, 즉 샴페인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게다가 러시아산 브랜디와 위스키는 구입하기 매우 어려워져 희소가치를 띠게 되었다.<sup>8)</sup>

전쟁 말기에 이용 가능한 물자 대부분이 전쟁에 동원되던 당시의 긴박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샤링의 어머니는 단순한 개인 기호품을 러시아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의 유통이 안 될 정도로 절대적 희소가치를 가진 고가의 사치품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만주국이 세워진 후 1940년대 이전까지 술 소비 광고 속에서 음주는 훌륭한 개인 취향, 문명과 모더니티의 상징이었다. 특히 와인의 경우는 현대적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산층과 고위 계층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상품으로 선전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게 되자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중독품이자 병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 나아가 영미 제국주의와 싸우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회적 골칫거리로 인식

---

8) Smith, *Intoxicating Manchuria*, 48-49.

되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만주국이 술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만주국 민을 영미 제국주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피신처의 역할을 도맡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사회 역사적 문맥에서 볼 때, 샤령 어머니의 위스키에 대한 욕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고가의 희소가치를 가진 위스키는 이것을 마시는 러시아 망명자, 즉 당시 러시아인들이 처했던 낮은 사회적 위치를 심리적 차원에서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문화적 상품 장치로 작용한다. 또 다른 면은 만주국 당국이 전시 특수 상황이라는 구실 하에 음주 문화를 통제함과 동시에 대중 및 대중문화를 동원하여 구축하고자 했던 젠더 규범에 그녀가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다음 단락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미스는 중국 작가들이 이 작품 및 유사한 작품들에서 묘사한 러시아인들의 음주 행위를 중국의 식민 상황과 연관 지어 분석하였다. 요컨대, 러시아인들은 고국을 떠나게 된 슬픔을 술로 위로하였으며, 중국인 또한 나라를 잃은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그들에게 동정심을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어떤 술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술이 단순한 위안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치품으로서 그들의 하강된 사회적 위치를 심리적으로나마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구별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샤령의 어머니는 위스키를 마심으로써 과거 고국에서 귀족으로서 지냈던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일반적으로 고량주를 마시는 중국 사람과 달리 자신이 고급스러운 취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위스키는 고량주로 대표되는 다수 중국인으로부터 그녀를 구별해 주는 특별한 사회적 상징 장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위스키로 대

---

9) Smith, *Intoxicating Manchuria*, 3장, 4장.

표되는 러시아인의 취향을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력을 구비해야만 러시아인과 연애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물론 그가 기혼자라는 또 다른 걸림돌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위스키는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과거 러시아인의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회적 위치와 부유한 삶을 고스란히 투영하는 물질적 환유이자 그녀의 희소 상품에 대한 욕망을 잘 드러내주는 상징 장치이다. 샤링의 어머니는 위스키를 매개로 하여 그녀의 사회적 위치 상승에 대한 욕망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통해 중국인들로부터 러시아인들을 구별해 주는 차이의 기호를 만드는 것이다.<sup>10)</sup> 위스키라는 희소 고가치 상품으로 인하여 그녀는 다른 중국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부각될 수 있고, 그 논리를 자신의 딸에게도 그대로 연장하여 중국인과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녀가 중국인과 러시아인을 구별하는 방식은 그녀가 가부장 및 부권을 대신해 가정에서 모권을 휘두르며 딸의 연애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녀가 어머니로서 가진 권능은 딸의 사랑과 삶을 위스키라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상품의 논리에 따라서 행사되고, 동시에 그 상품 때문에 그녀의 모권이 더 강해지는 상보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다시 말해 딸의 로맨스와 인생은 술이라는 상품과도 바꿀 수 있는 대체물이며, 개인 감정의 표현 및 이성과의 관계는 상품을 통해서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잉의 소설 서사에서 어머니는 인간 관계의 물신화를 부추기는 주체이자 동시에 딸의 감정을 계량화하여, 상품적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10) 부르디외는 구별의 기호를 획득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보다 낮은 계층을 피동적 객체로 지정하여 비교 및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부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Pierre Bourdieu,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trans. Richard N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251.

절대 모권의 행사자가 된다. 그 결과 샤링의 어머니는 위스키를 마심으로 써 중국인에게는 인종적으로 백인인 동시에 문화적으로 우월함을 과시하고, 나아가 위스키의 물질적·상징적 가치에 힘입어 개인 감정과 주체적인 사랑을 억압하는 모권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행위자가 된다.

샤링 어머니의 음주 행위는 가정 안에서 보면 그녀가 가부장의 역할을 하며 또 다른 여성을 억압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더 넓게 보면 당시 만주국 당국에서 술 소비와 여성의 음주 문화를 통제하려고 했던, 기존에 남성이 구축한 젠더 질서와 규범에 도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1930년대 후반 즈음 음주가 여성의 사교에 있어서 중요한 품목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따라서 그 유용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술이 여성들을 더욱 아름다워 보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흥을 돋우는 특별한 기능도 가졌다고 보았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술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고, 또한 개인의 사적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다. 더불어 와인은 건강에 유익한 술이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품목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술이 사교에 있어서 윤회유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비롯하여 술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 평가는 1930년대 말에 와서 급격하게 변한다. 술이 오히려 질병과 무질서로 상징되기 시작한 것이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 알코올 소비의 유해성이 위장병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증을 일으킬 수준이라는 심각성이 제기되었고, 그 정도가 심해져 술 소비가 가정과 국가의 공공연한 적으로 규정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전쟁의 막다른 골목에서는 술 소비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치명적인 폭탄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이 논리 안에서 여성들은 좋은 와인이나 코르크를 고를 수 없는 문화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우울한 여성의 경우는

술 때문에 자살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가 주어졌다.<sup>11)</sup> 이러한 위계적인 젠더 질서 구조와 편협한 젠더 규범 및 관념 속에서는 남성만이 좋은 술과 와인을 감별할 수 있는 문화적 유능성(cultural competence)을 보유한다. 반면 여성의 음주는 전적으로 감정 상태에 의해 지배되므로, 특히 침울한 여성이 술에 취하는 것은 자살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가 된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사고가 팽배한 글이 당시 만주국의 문화 생산장에서 유통되고 소비된 사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샤링의 어머니는 남성 중심적 취향의 코드가 만연한 제국에서 대안적 젠더 문화를 주도적으로 건설한다고 볼 수 있다. 그녀의 음주 행위는 역으로 말해 여성도 좋은 위스키를 마실 수 있고, 그 맛과 질을 감별할 수 있는 미식가적 취향과 문화적 유능성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식 식량 부족과 곡물 공급의 부족으로 극도의 내핍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샤링의 어머니는 개인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술을 마신다. 그녀의 음주 행위는 국가의 통제와 가부장적 질서 및 그에 기반한 터무니없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함을 표현한다. 더구나 당시 러시아인은 만주국에서도 소수자임과 동시에 대다수가 무국적자였으며, 술 마시기가 국가 전복 행위와도 동일시되었던 특수한 사회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사회 역사적 문맥을 고려했을 때, 대중소설 작품은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적 전복성과 역사적 우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문학작품이 가진 다의성(polysemy)과 무한한 해독의 담지자로서 열린 기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11) Smith, *Intoxicating Manchuria*, 57-65.



#### 4. 위스키, 민족 저열성의 담지체 및 개인 기호의 민족화

러시아 고국에서의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만주국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러시아인들에게, 위스키는 그들이 고국에서 즐겨 마시던 술임과 동시에 고국에서 누렸던 이전의 사회적 위치를 상징해주는 상품이자 문화적 상징이 된다. 그들은 현실에서 누릴 수 없는 물질적 풍요, 그리고 되찾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과거의 사회적 위치를 희소가치를 가진 고가의 위스키로 대체한 것이다. 즉 만주국의 러시아인들에게 위스키는 과거에 귀족으로서 누린 특권화된 사회적 위치와 그 화려한 삶에 대한 동경 및 현재에도 과거의 풍요와 영광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을 반영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의 눈에는 그저 러시아인들이 술을 잘 마시는 민족임을 일차원적으로 드러내는, 하찮고 무가치한 사물에 지나지 않는다. 샤링의 어머니에게 위스키를 선물하면 그들의 관계를 눈감아 줄 것이라는 말에, 러시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러시아 사람들은 모두 다 술 마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군’(83쪽). 한 개인의 음주 기호는 러시아인 전체에게로 확대되어 민족화된다. 어떤 이가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것이 러시아에게는 더 이상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논리에 따라 러시아 어머니는 러시아인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이므로, 이는 러시아인의 민족적 특성, 더 나아가 그들의 고유한 민족성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가 러시아인들이 애주가라는 사실을 그들의 문화적·민족적 특징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샤링 어머니의 나쁜 근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샤링의 어머니는 러시아인을 대표하고, 그녀의 애주가적인 면모는 러시아 민족성의 저열한 특성이 된다. 러시아는 샤링 어머니가 술에 의존하여 연명한다고 보고, 자신

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주요 경위를 채근하여 샤링이 여태까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무관심한 냉대 혹은 맹목적인 익애(溺愛)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녀[샤링의 어머니]는 여전히 구 귀족 사회의 유민으로 샤링에게 일체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샤링은 어머니가 위스키를 좋아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좋지 않은 근성과 콧대 높은 귀족적인 성격을 돌이켜보며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라고는 냉대이거나 익애(溺愛)였다는 생각이 들었다’(85쪽).

이 이야기는 러시아, 즉 ‘나’의 시각으로 서술되었다.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개할 때 종종 인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 대목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처리하여 샤링의 생각을 전하는 듯하지만, 정작 그녀의 생각을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풀어서 대변하고 있다. 러시아에게 그와 샤링이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는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위스키 마시기를 좋아하는 저열한 면을 가진 러시아 망명객에 불과하다. 샤링이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고통을 채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위스키를 즐겨 마시는 등 저열한 성격을 가지지 않은 ‘나’, 바로 중국인이다. 러시아는 어머니의 속박으로부터 샤링을 구하고 그녀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술을 좋아한다는 취향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개인 취향의 문제에 가치를 부여하고 위계적으로 평가하여 인종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 전개가 가진 심각성은 그것이 개인 기호의 선호도 차원을 뛰어넘어, ‘민족의 우월함과 저열함, 나아가 로맨스에 있어서 자유를 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연애’라는 논리를 낳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기호와 사랑에 대한 인종화된 가치 평가 속에서 정작 본인이 기혼자이면서 혼외정사를 추구하는 이중적

욕망은 철저하게 가려지고 만다. 그러므로 중국인인 ‘나’는 러시아 어머니의 저열한 근성 때문에 자유를 억압당하는 망명자 샤링을 구해주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만든 인종의 위계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중국인은 보다 열등한 이민자 및 망명자의 문화적 기호, 음식 문화와 식습관에 인종적 가치를 부여하고 타자화함으로써, 중국인과 중국 문화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만주국에서 이민자와 망명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 주고 그들이 중국 사회에 정착하여 살도록 도와주는 무조건적 환대(hospitality)의 정치학이 실행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민자와 망명자는 그들의 독특한 식습관 때문에 중국인과 구별되고 나아가 중국인이 임의적으로 부과한 구별의 논리에 따라 열등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문화유산과 러시아인의 문화 기호에 대한 러시아의 인종화는 젠더 구조와 결부되어 진행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러시아인 모두는 술 마시기 좋아하는 저열한 민족이지만, 그 중에서 대문호인 남성, 푸시킨과 고리키는 예외가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러시아가 가진 필력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문화적 귀감으로 자리매김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는 문화 기호의 상징 장치를 통해서 러시아 여성의 문화 기호가 남성의 위대한 문화유산에 종속됨으로써 인종과 젠더가 구성되는 방식이 서로 긴밀하게 교차하고 있다.

러시아의 눈에 샤링의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고 딸의 자유연애를 억압하는 보수적인 사람으로 비춰는데, 이 점은 샤링과의 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샤링의 어머니는 과부로서 수절하는 논리를 딸에게 주입하려고 하여 샤링과 갈등을 빚는다. 샤링은 자신의 어머니와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모녀 사이에 쌓인 깊은 감정의 골을 러시아에게 알려준다. 러시아가 그녀의 어머니가 왜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지 묻자, 그녀는 대답한다.

“우리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마치 자유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묻어둔 사람 같아요. 엄마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저는 큰 거리감을 느껴요. 또 엄마가 여태까지 수절을 해와서 저도 엄마 옆에서 같이 수절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84쪽).

리시아가 듣기에 샤링의 목소리는 비애감을 띠고 있고, 그것은 마치 봉건적이고 수구적인 모성의 압박하에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는 외침같이 들렸다. 리시아는 그녀에게 근심하지 말고 청년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며, 또 그녀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안심시킨다. 그러자 그녀는 도리어 자조적으로 말한다.

“저는 당신이 변심할까 봐 걱정돼요. 왜냐하면 나는 러시아 출신이고, 민족의 혈통상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에요!”(84쪽).

이 대목에서 리시아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녀가 한 말이 매우 맞다고 생각한다. 샤링의 자괴감 및 자기 비하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리시아의 반응이다. 즉 그에게 샤링이 중국에서 이민족, 망명객으로서 받는 따가운 시선과 차별의 눈초리는 당연한 것이므로, 그녀가 중국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중국인이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것도 자명한 일이 된다. 리시아는 샤링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않고 딸의 자유를 속박하는 모습 때문에, 그녀를 봉건적·수구적 모성을 가진 사람이자 중국인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한다. 동시에 그는 이러한 인종의 위계질서에 입각하여 단지 러시아 망명객,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중국 사회에서 멸시 받고, 배척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논리에 의거하여, 그들은 언제



〈이미지 1〉샤링의 크고 파란 눈과 굵게 말린 듯한 머리로 그녀의 이국적 정취를 강조한 삽화. 리시아의 몸 크기가 비울 면에서 샤링의 왜소함과 큰 대조를 이룬다. 삽화에서 리시아가 비록 그녀의 손을 잡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다시 아들 위얼에게 향하고 있음을 진하게 표제자로 처리하여 그가 샤링과 아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范莹 作, 老趙 繪, 〈北地戀歌〉, 《麒麟》, 1941년 10월, 84-85.

든지 중국 사람과 중국 사회의 필요조건에 의하여 그 사회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

소설 서사의 전개 면에서 볼 때, 타민족을 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리시아가 강력한 모권을 행사하는 어머니로부터 샤링을 결국 구해내지도 못한다는 데 있다. 그는 H시에서 샤링과 사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도 끊임없이 고향에 있는 아들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아들이 아프다는 전보를 받자마자 황급히 고향으로 떠나 버린다.<sup>12)</sup> 결국 리시

12) 서술자는 작품 말미에 奉天(현재의 선양, 沈陽)에서 이 이야기를 창작했다고 밝히



〈이미지 2〉 소설 배경인 하얼빈시 타이양다오의 현재 모습. 러시아 건물풍으로 유람객이 작은 배를 탈 수 있는 공간이다. 1940년 당시에도 러시아인들은 이곳에서 요트를 타고 수영을 즐겼다.

이미지 출처: <http://haerbin.52travel.com/jingdian/haerbintaiyangdao>

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향에서 만난 이국 소녀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고향에 있는 자신의 대를 이을 핏줄이었던 것이다. 그에게 아들을 포기하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었다(84쪽).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을 선택했고, 그와의 결별에 힘들어했던 샤링은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리시아는 고향에 가더라도 되도록이면 일찍 돌아오고, 편지라도 해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체의 연락을 끊은 채 고향에 오랫동안 머무른다. 리시아에게 있어서 H시는 이국의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고 있다.

지만, 가족이 거주하는 고향보다 부차적인 곳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곳이다. 다시 말해 H시는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향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전적으로 결정되어, 그 도시 속의 모든 존재 및 그 의의가 자신의 시야에서 바로 사라질 수 있는 유아무야한 곳이기도 하다. 중국인 시각으로 본 H시는 러시아인에게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H시는 러시아인들이 중국에 망명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제2의 고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특이한 식습관과 열등한 민족성으로 대변되는 이 이민족이 부평초처럼 떠돌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고 마는 신기루 같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샤링과 러시아의 사랑 이야기도 가능한 한 중국인에게 이질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기존의 중국 가족 구조나 가정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에만 현실 세계와의 거리 속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그의 고향은 아내와 아들이 있고, 그의 가계가 대대로 이어져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로서 계속해서 기능한다. 따라서 H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중국인과 러시아 이민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기혼과 미혼의 사회적 제약을 넘을 수 있는 감정의 도시이지만, 샤링의 죽음과 러시아의 귀향으로 이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라지게 만들어 결국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기능을 한다. 이렇듯 H시는 고향의 의미를 자각하게 해주고, 고향의 중요성을 돋보이게 해 주는 상감(象嵌)같은 작용을 하며, 인물의 죽음과 함께 그 의미도 사라지고 마는 곳이다.

## 5. 음주, 배제와 환대의 정치학 사이

이 작품이 나온 이후 1943년에 만주영화협회(滿洲映画協會)와 일본영

화회사 토호(東宝)가 합작하여 만든 영화 《나의 피꼬리》(私の鶯, *Watashino Uguisu*, 島津 保次郎 감독)에서도 러시아인들이 술 마시는 장면이 등장한다.<sup>13)</sup> 이 영화는 만주국에서 일본인이 서양 클래식 음악을 그 누구보다도 잘 배우고 공연할 수 있다는 주제를 표현하여 그들이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선전·선동용 영화이다. 시마즈 야스지로(1897-1945) 감독은 일본인이 백군과 러시아인(동시에 인종적으로 백인으로 인식됨) 망명객을 만주국에 수용한다는 플롯 속에서 일본이 인종 질서의 최상층에 있음을 표현했다. 영화에서 술을 마시는 주역들은 구 러시아 황제 극장 출신의 망명 음악가 단원들이다. 여기에서 술은 일본인들이 하얼빈으로 이주해 온 백군과 러시아 망명객을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도구로 작용한다. 일본인들은 갈 곳 없는 러시아인들을 받아주고 술과 진수성찬으로 대접해주며 그들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는, 휴머니스트적인 존재이다. 이 영화와 〈북방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보면, 1940년대 만주국 문화 생산장에서 러시아인들을 재현하는 목소리는 매체마다 제각각이다. 중국 소설 작가나 일본 영화감독 모두 러시아인들을 술을 매개로 하여 재현하였고, 망명객을 외부자로 취급하여 내부자인 그들에게 종속시키는 서사 구조를 구성했다. 이러한 인종질서에 인종관념이 결부되어, 그 이면에는 보다 강하고 바람직한 자신들의 민족성을 구현하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인과 백군과 러시아 망명객의 경우에 있어서 인종질서는 ‘식민자/피식민자’라는 이분법 및 국가 경계에 따라서 형성되기보다는 피식민자 내부에서 균열적으로 형성되어, 식민 지배구조가 가진 다층적인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중국인들은 러시아인들을 그들에게 종속시켜 또 다른 인종적 지배 질서 구조를 만들었

13) 島津 保次郎, 《私の鶯》(東京: 東寶映画株式会社, 1943). VHS(東京: 東寶映画株式会社), 1986.



으며 문화적으로 식민자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중국이 구축한 인종적·문화적 서열에 의거하여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문화접촉은 쌍방향적이고 대칭적이라기보다는, 중국인이 러시아인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일방적이고 불균형한 관계로 집약되었다. 이렇게 1940년 만주국에서 음주는 환대와 배제의 논리하에 문화 생산장에서 상품화되어 인종화된 기표로 제시되었다. 망명객을 수용하기 위한 환대 또는 문화적 차이를 이용한 배제의 정치학은 표면적으로 서로 다른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하는 듯하지만, 실상 그 둘은 자국(이 경우, 일본과 중국) 민족성의 구축이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표현된 민족주의의 한 양상인 것이다. 이 음주와 관련된 기표들이 문화 역사 연구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러시아 무국적자들이 식민 지배와 민족성의 구성에 있어서 갖는 다층적 역할에 있다. 만주국 러시아인의 사례는 그들이 무국적 상태에서 민족성을 가진 민족으로 인식되어 중국인의 민족성 구성을 위해 포함되는 동시에 배제되었고, 또 문화 생산장에서 그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중국인이 대변해주었다는 점에서 독자의 주의력을 끈다.

## 참고문헌

- 박강. 《20세기 전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 서울: 선인, 2008.
- 范莹. 〈北地戀歌〉. 《麒麟》, 1941년 10월, 82-87.
- 刘晓丽. 〈伪满时期文学杂志新考〉.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107, 2005. 140-157.
- 王学泰. 《中国饮食文化史》. 桂林: 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06.
- 島津 保次郎. 《私の鶯》. 東京: 東寶映画株式会社, 1943. VHS, 東京: 東寶映画株式会社, 1986.
- Balibar, Étienne, and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

*ties*. London: Verso, 1991.

Bourdieu, Pierre.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trans. Richard N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Smith, Norman. *Resisting Manchukuo: Chinese Women Writers and the Japanese Occupation*.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2007.

\_\_\_\_\_. *Intoxicating Manchuria: Alcohol, Opium, and Culture in China's Northeast*.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2012.